

국토부, 광주 군공항 이전 '민간공항 통합' 과 연계하나

‘제6차 공항개발 계획’ 무안군 강력 반발·전남도 “당황스럽다”
국토부 “시·도 의견 수렴 중” … 9월 확정·고시 목표 작업 추진

광역시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9월 중 확정·고시 예정인 정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5차 계획(2016~2020년)에선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을 무안국제공항과 광주공항 통합과 연계하겠다는 취지로 여겨질 만한 내용이 제6차 공항개발계획안에 담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의견 수렴 중”이라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18일 전남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오는 23일 의견 수렴을 마치고 관련 부처 협의,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확정·고시를 목표로 작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마련한 제6차 공항개발 계획안을 두고 전남지역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광주공항의 무안국제공항으로의 통합과 관련한 내용이 앞선 5차 계획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보낸 제6차 공항개발 계획안에서 ‘무안공항 및 광주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심 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이전 시기에 대해선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이라고 답했다. 광주군공항 이전사업과 민간공항 통합이전 시기를 연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제5차 계획에서 “무안공항을 서남권의 중심 공항으로 활용하고,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으로 통합 추진. 지자체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통합 시기를 검토”라고 밝힌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무안국제공항과 광주공항의 조속한 통합을 기대해왔던 무안지역사회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일상(71)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민간공항의 통합 시기를 못 박지 않고 느닷없이 광주군공항과 연계하겠다고 정부가 나서서 이유가 뭐냐”며 “광주시와 정부 뜻대로 광주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폐기하지도 않아 무안으로 보내겠다는 속셈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19일 무안군청에서 국토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그 뒤에도 입장 변화가 없으면 국토부 항의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전남도 역시 국토부의 공항개발 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임에도, 예측 가능성이나 사전 예고 없이 이전 계획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짜이는 것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지만, 공개 반발은 삼가는 분위기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선 5차 계획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이 6차 계획안에 등장해 당황스럽다”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토부에 군공항 이전과 민항 통합 연계는 절대 안 된다는 취지로 전남도 입장을 밝힌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공항 통합을 위해선 군공

항 이전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아니라,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라는 의미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의견 수렴과 위원회 심의 과정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했다.

“혁신공항” 건설 관련해서는 정부의 의지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5차 계획에선 “혁신공항은 설계, 공사 등 사업을 본격 진행하여 2020년경 개항 추진. 소형항공운송사업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선 운항계획에 따라 상대공항에 소형항공기 주기장 등을 확보”라고 목표 개항 시기를 적시했지만, 6차 계획안에서는 “관계부처 등 협의를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이라고만 담겼다는 점에 서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문제인 정부 공약임에도 정부의 의지가 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푸념이 흘러나온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봄비는 선별진료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다시 1800명대로 늘어난 18일 오전 광주 광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최현배 기자choi@

겪이지 않는 코로나 기세
광주, 외국인 7명 포함 16명 확진
전남, 43명 중 여수순천광양 32명

광주와 전남에서 광복절 연휴와 막바지 여름 휴가 여파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이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광주에선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쏟아지는 등 외국인 관련 확진도 이어지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에서 외국인 7명, 내국인 9명이 최근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14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온 인근 교회를 비롯한 광주에서는 지난달부터 외국인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아파트와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역학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에선 이날 오후 2시 현재 모두 9명(누적 3768명)이 신규 확진됐다. 서구 소재 보험회사 관련 1명(누적 22명), 광산구 외국인 등 검사 관련 2명(누적 34명), 광산구 호프집 관련 1명, 기존 확진자 관련 1명, 전남 확진자 관련 1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유증상자 3명이다. 전남에서는 오후 2시 현재 순천 4명, 나주 3명, 광양 1명, 화순 1명 등 모두 9명이 신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397명이 됐다. 전남에서는 앞서 17일 하루 동안 34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다. 지난 5월 순천 나이트클럽발 유행 당시 신규 확진자 50명에 이어 가장 많은 확진자다. 17일 확진자는 순천 12명, 여수 11명, 광양 4명, 곡성 2명, 나주·화순·무안 각 1명 등이다. 이들 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43명 가운데 32명이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최대 인구 밀집지에 집중됐다. /박진표·김형호 기자 lucky@kwangju.co.kr

“5천억 특혜” 국회 우려에도·지역사회 비난에도… 부영, 이종근 회장 석방 되자마자 용도변경 속도

부영골프장 환경평가서 제출

나주시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부영골프장 토지 용도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수천억짜리 특혜성 토지 용도변경’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 가석방은 특혜’라는 지역사회 비난 여론에도 보란 듯이 이 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직후부터 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8일 나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나주시는 지난 17일 나주시 빛가람동 908번지 일원 부영 CC 잔여부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토지 용도변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환경청에 접수했다. 초안 제출, 공개와 함께 주민 의견 수렴(공청회 등)이 이뤄지고, 전

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순으로 토지 용도 변경 절차는 진행된다.

지난 1년간 지역사회와 여야 모두로부터 쏟아진 특혜 비난과 우려에도 초안에 담긴 사업 계획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공대 부지(40만㎡)로 기부하고 남은 부영CC 잔여지 35만여㎡에 5328가구 규모의 고층 아파트 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토지 용도 변경(자연녹지→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도시계획전문가들은 아파트 과잉 공급에 따른 정주 여건 악화 및 아파트값 하락 등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고, 건설업계에선 “토지 용도변경과 아파트 건설로 부영주택이 얻게 될 이익이 최소 5000억 원”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부영주택은 사업 계획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한전공대 부지 제공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특혜라며 초중고교 신설 부지 제공 등 공공기여 확대와 아파트 건설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 여론과 교육청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주시 역시 지난 3월 ‘한전공대발’ 제정 과정에서 여야 모두로부터 특혜 지적을 받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받았으나 시중 사업자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부영주택과 나주시는 ‘13쪽짜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을 공개하고 전자공청회 형식으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위법 부실 초안’, ‘졸속 의견 수렴’ 비판을 샀던 지난 2월과는 달리, 이번에는 600페이지가량의 방대한 초안을 환경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전 협의

과정에서 환경청이 제시했던 아파트 동 간 간격 확보, 일조권 확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등 기존 시설과의 영향성 평가 등을 충실히 반영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고 9월 중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항후 절차에서 지역사회 여론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주 부영골프장 잔여지 특혜성 용도변경 추진과 맞물려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에 대해서도 ‘특혜성 가석방’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 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수백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종근 회장을 가석방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에 맞지 않는 특혜”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증명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Mercedes-EQ
This is for a new generation.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성 서비스센터 (04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당동로 1041(화정동)
수원 서비스센터 (031)7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영암대대로 516(수원동)
주안 서비스센터 (062)94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동로로 520(주안동)

Mercedes-Benz